



NH농협은행-서울경제진흥원, 스타트업 성장 지원
NH농협은행은 지난 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사에서 서울경제진흥원과 혁신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재호 농협은행 부행장(왼쪽)과 김용상 서울경제진흥원 사업부문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DGB금융그룹, '따뜻한 사회복지사 상' 수여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DGB 따뜻한 사회복지사 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태문 DGB금융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전무(왼쪽 두번째)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GB금융



현대트랜시스, 2024년 '파트너스 데이' 개최
현대트랜시스가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27일 현대트랜시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주요 파트너사 대표들을 초청해 2024년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현대트랜시스는 중장기 제품 양산 계획과 미래 발전 전략, 올해 중점 추진 사항 등을 파트너사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트랜시스



소진공, 의류업 소공인 위한 '패션메이커허브' 개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의류제조 소공인의 협업을 돕는 '패션메이커허브 소공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열었다. 26일 서울 종로 '패션메이커허브 소공인 코워킹 스페이스' 개소식에서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 3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자조기금 사업 5000만원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조기금 사업 3개를 선정해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사단법인 제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단법인 강원사회적경제연대,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임팩트금융 생태계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은 평가순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법률·회계·세무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도 제공된다. /원관희 기자 wkh20

SKT-KLPGA, AI 기반 '골프 영상 아카이브' 사업 추진

골프 방송영상에 데이터 결합
내달 4일 첫 AI 중계방송 실시

SK텔레콤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AI(인공지능) 기반 골프 영상 아카이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T의 에이닷과 SK브로드밴드의 Btv에서 골프 데이터 방송을 4월 론칭하면서 골프 방송의 선수 샷 영상에 데이터를 결합, 시청자가 선호 선수의 샷영상과 기록 및 과거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LPGA 협회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협회 소속 선수들의 영상과 기록을 결합한 아카이브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SKT의 AI 미디어 기술을 협회의 영상 아카이브 사업에 도입하기로 했다.



(왼쪽부터)최형석 CNPS 사장, 김정태 KLPGA 회장, 김유석 SBS골프 사장, 김혁 SKT 미디어콘텐츠 담당이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T

이에 골프 경기 관련 권리를 가지고 있는 KLPGA 협회와 골프 경기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SBS골프, 골프 경기의 공식 데이터를 제공하는 CNPS, AI 미디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SKT가 협력해 KLPGA 협회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AI 미디어 기술은 AI가 방송 중계 화면의 선수들의 동작과 스코어를 인식,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자동으로 편집하고 해당 영상의 데이터를 결합·저장하며 에이닷과 Btv 또는 골프 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LG생활건강, 울산 도심에 '새들의 공원' 만든다

오치골공원에 나무 1400그루 식재
탐사 프로그램 등 환경 캠페인 확대

LG생활건강이 조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새들의 공원'을 기획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6일 울산 양정동 오치골공원에서 나무 1400그루를 심는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LG생활건강은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꽃과 열매를 맺는 교목과 관목을 심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마가목, 벚나무, 화살나무 등을 오치골공원 곳곳에 식재하고 새들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새집 20개와 모이통, 물통 등도 제작, 설치했다.



지난 26일 울산 양정동 오치골공원에서 LG생활건강 임직원과 울산 북구청, 울산 생명 의숲 등 지역사회 관계자 50여 명이 나무를 심고 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향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새들의 공원을 가꾸 나갈 수 있도록 '시민 과학자'와 '숲 해설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공원을 찾는 지역 주민들

에게 새와 곤충, 식물 등을 설명하는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알리는 환경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 'BBP 챌린지' 동참
(바이바이플라스틱)

한솔제지 한철규 대표이사(사진)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철규 대표는 지난 21일 한솔제지 유튜브에 공개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영상을 통해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종이제품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CJ제일제당 연구소 그레고리 염소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한 한 대표는 다음 참가자로 이복진 한국제지연합회 회장과 전광진 삼육식품 대표를 지목했다. /김승호 기자

SK이노, 'RoHS'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국제표준)

계열사 생산·판매 제품 직접 시험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RoHS'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계열 회사들이 생산·판매하는 관련 제품의 무해성을 직접 시험할 수 있게 됐다.

RoHS는 유럽연합(EU)이 지난 2006년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표준 지침이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이번에 RoHS 10개, 유해물질 관련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구성원들이 RoHS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인증 획득을 소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14개 규격에 대한 공인시험 자격을 획득했다.

국내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제적으로도 동등한 효과와 공신력을 가진다.

/차현정 기자

부음

▲ 윤웅섭(전 서울경찰청장·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향년 82세)씨 별세, 정순락씨 남편상, 윤성원(작가)·주원(화가)·

국노(해외 거주) 씨 부친상 = 2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02-2258-5946.

SKT는 MOU를 통해 각각의 권리와 기술을 가진 4개 회사가 힘을 모아 골프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팬들의 관심을 증대시켜 우리나라 골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력의 결과물로 내달 4일부터 SKT A. 미디어와 Btv의 SBS골프 채널에서 KLPGA 국내 첫 대회인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AI 중계방송을 실시한다.

김혁 SKT 미디어콘텐츠 담당(CMBO, Chief Media Business Officer)은 "디지털방송 도입 때부터 기대했던 서비스가 SBS골프와 KLPGA의 도움과 협력으로 실현됐다"며 "SKT의 AI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와 스포츠의 결합이 팬들에게 새로운 스포츠 중계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 'K-BPI'

롯데GRS
롯데리아 '골든브랜드' 인증
패스트푸드 부문 26년 연속 1위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한국능률협회(KMAC)가 주관하는 '2024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서비스업 패스트푸드부문에서 26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리아는 브랜드파워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26년째 연속 1위를 수성해 이어 10년 이상 연속 1위 브랜드에 주어지는 '골든 브랜드'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브랜드 인지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리아는 브랜드 강화를 위해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버거' 창립 슬로건 아래 매년 다채로운 한국적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경동나비엔
환기청정기 3년 연속 1위

경동나비엔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제26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환기청정기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27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경동나비엔 환기청정기는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평가하는 조사 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환기청정기 부문이 신설된 이래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동나비엔의 환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의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기청정기 기능으로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 동시에, UV-LED를 탑재한 4단계의 청정 필터시스템으로 외부의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 실내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김승호 기자 bada@